

- > 주간회의
- > 연구과제
- > 연구사업
- > 동정
- > 언론보도
- > 게시판
- > 토론회요약
- > 인터뷰요약
- > 자유발언대

## 주간회의

(9월 6일 09:30 연구원회의실)

- \* 전라북도 이슈현안 등에 대해 연구원 차원 적극관심
  - 직도 사격장 연구원 차원 조사 필요
    - : 어민, 군산시민 등 생계문제
    - : 군산해양관광단지조성, 새만금개발 등 영향 여부
  - 식품산업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촉진, 기업유치 등에 대한 연구원 차원의 역할 주문

(9월 6일 09:30 연구원회의실)

- \* 중간 연구심의회의 차질없도록 추진
- \* 강소성사회과학원 공동심포지엄 프로그램 준비
- \* 연구원 C준비, 도메인 등록절차 확인

## 연구과제

\* “전북지역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욕구조사 및 참여방안” (기본) 설문조사

전라북도 여성가족과 주최로 9월 7일 열린 ‘2006전북여성취업박람회’에서 본원 조경옥 연구위원은 참여한 미취업여성과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참여기업체 40업체와 미취업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익산 왕궁특수지역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 및 이주대책 관련 전문가 토론회  
익산 왕궁특수지역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 및 이주대책 관련 전문가 토론회가 9월 8일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전북발전연구원주관으로 개최되었다. 본원 한영주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본 토론회는 이창현박사(전북발전연구원)등의 주제 발표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었다. [☞ 토론내용 요약](#)

## 연구사업

\* 전북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포럼 2차 간담회

전북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포럼 참여기관 2차 간담회가 9월7일 연구원 중회의실에서 경영자총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 군장대학교, 예수대학교 등 많은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이강진 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주요 안건으로 1차포럼에 대한 보고와 2차포럼의 주제, 뉴스레터에 실리게 될 전문가 컬럼 기고자 선정, 그리고 참여기관의 분과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북의 미래를 먹여살릴 대형국책사업을 찾고 있습니다.(~10.20)**

- > 주간회의
- > 연구과제
- > 연구사업
- > 동정
- > 언론보도
- > 게시판
- > 토론회요약
- > 인터뷰요약
- > 자유발언대

**\*지역혁신우수사례 전라북도 지역예선대회**

지역혁신우수사례 전라북도 예선대회가 9월 5일 전북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는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개 분야 35개 응모사업에 대한 발표 및 심사가 있었다. 이중 RIS분야 4곳, 지자체 2곳, 대학3곳, 연구지원기관 1곳, 중소기업 2곳 등 모두 12개 우수사례사업을 선정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추천하였다. 추천된 사례들은 9월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본선 심사를 거쳐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3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11.7~11)'에 출품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상, 전라북도지사상, 전라북도지역혁신협의회 의장상 등 총 17개 사례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 지역혁신 예선대회 당선작

분 야	사 업 명	기 관 명
R I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창 장류산업 육성</li> <li>○ 진안 혁신협의회 운영</li> <li>○ 김제 혁신협의회 운영</li> </ul>	장류연구사업소 진안 협의회 김제 협의회
연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나노미터급 X선 현미경 개발</li> <li>○ 순창장류연구소 건립</li> <li>○ 휴면연구결과 상용화지원체제구축</li> </ul>	원광대학교 순창장류연구소 전주생물소재연구소
대 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부품산업 기술인력양성</li> <li>○ 한지산업 부흥 산학관 체계구축</li> <li>○ 전북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li> </ul>	익산대학 예원예술대 군장대학
신활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실치즈밸리사업</li> <li>○ 고창북분자클러스터사업</li> </ul>	임 실 군 고 창 군
자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순환농업 혁신체계구축</li> <li>○ 농산물 유통체계 신모델 개발</li> <li>○ 지리산 웰빙허브산업육성</li> </ul>	장 수 군 정 읍 시 남 원 시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적외선 고품질 곡물건조기술개발</li> <li>○ 위성영상 환경감시 시스템개발</li> <li>○ 문화원형 디지털 복원 기술개발</li> </ul>	한성공업(주) (주)민광지리정보 모 던 아 트

◎ 지역혁신 예선대회 본선 응모 사업 목록

분 야	응 모 기 관	사 업 명
시군구협의회	진안군	진안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시군구협의회	김제시	김제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시군구협의회	순창군	순창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역혁신특성화	순창군	순창장류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구축사업
신활력	임실군	한국의 새로운 지역개발 모델 임실치즈밸리 사업
자체사업	장수군	지역 순환농업 혁신체계 구축
전문대학특성화	익산대	자동차부품산업 생산기술인력 양성사업
누리사업	예원예술대	한지산업 부흥을 위한 산학관 혁신체계 구축
산학협력중심대학	군장대	전북전략산업 기술혁신 클러스터 구축 사업
연구지원기관	원광대 익산방사선 영상과학연구소	50나노미터급 X선 현미경 시스템 개발
중소기업	한성공업(주)	원적외선 고품질 곡물건조기술 개발
중소기업	(주)민광지리정보	위성영상 및 지리정보를 이용한 도시지역 환경감시 시스템개발

- > 주간회의
- > 연구과제
- > 연구사업
- > 등정
- > 언론보도
- > 게시판
- > 토론회요약
- > 인터뷰요약
- > 자유발언대

## 등 정

### \*한영주 원장

-9월 6일(07:30)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수요간담회에 참석.

-9월 7일(18:00~20:00) 순창군 장류센터에서 『글로벌시대의 전북발전방향』 특강

-9월 8일(11:00) 리베라호텔에서 전북경제발전연구회 회의에 참석.

-9월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왕궁 특수지역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 및 이주대책 관련 전문가토론회 참석.

### \*전정희 소장

-9월 7일 '2006전북여성취업박람회'에 참석, 평가 지표에 관해 자문.

### \*김진석 연구위원

-9월 7일(14:00~15:30) 본 연구원 회의실에서 전라북도 과학기술 연구위원회 제1차 연구위원회 개최. 이번 회의에서는 R&D과제 발굴사업 추진방안 및 과학연구단지 특화 방향 등에 대해 논의.

### \*김보국 연구위원

-9월 5일(10:00)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조성과제와 관련하여 전주시방환경청과 업무협의

### \*나상균 연구위원

-9월 5일 전라북도가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 조서성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 활동에 참가.

### \*안완기 연구위원

-9월 4~8일 "JB 비전 2030 - 함께 잘사는 희망전북" 수립 사업 제안과 의견 제시 및 동부권 특화 개발계획 관련 연구 과제 분야별 연구 자료 수집.

### \*이강진 연구위원

-9월 8일(14:00~17:00) 대전광역시청에서 개최된 전국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장협의회 회의에 참석. 회의의 안건은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의 운영, 센터의 예산집행방식, 각지역의 인적자원개발 중점추진방식, 인적자원개발조례제정, DB구축,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이며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었음.

### \*이동기 연구위원

-9월 8일(14:00~16:00) 전북의제21이 주관하는 전북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준비 위원에 위촉

-9월 8일 전남담양군에서 열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권역별 순회설명회 참석.

### \*이승형 연구위원

-9월 6일 바른선거시민모임전국연합회가 주최한 국가균형발전전략과 사회통합 과제라는 주제의 "양극화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의식포럼"에 참석.

- > 주간회의
- > 연구과제
- > 연구사업
- > 등정
- > 언론보도
- > 게시판
- > 토론회요약
- > 인터뷰요약
- > 자유발언대

### \*이창현 연구위원

-9월 4일 전라북도청 기획관리실 혁신분권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설명회 관련 시·군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고 시·군에 자문.

-9월 7일(목) 전라북도청 건설물류국 도로과, 건설행정과, 기획관리실 혁신분권과의 직무성과평가와 관련해 6개 사업에 대한 자문.

## 언론보도

\*저출산의 해법찾기 (전북도민일보, 8.31) - 전정희 소장

\*전주 KBS제1라디오 「전북은 지금」

(9월 11일 오후03:10~) - 김보국 연구위원

\*전주 MBC라디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9월 12일 08:35~ ) - 김보국 연구위원

## 게시판

### \*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초빙 공고

재단법인 전북발전연구원은 지역경제·사회개발 등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전라북도 출연연구기관으로서 연구와 경영능력을 겸비한 역량이 있는 분을 다음과 같이 초빙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자세히 보기](#)

## 「익산 왕궁특수지역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 및 이주대책관련 전문가 토론회」

### 〉 주간회의

### 〉 연구과제

### 〉 연구사업

### 〉 동정

### 〉 언론보도

### 〉 게시판

### 〉 토론회요약

### 〉 인터뷰요약

### 〉 자유발언대

- 유희영 : 왕궁지역의 개발은 완주첨단산업지역과 왕궁온천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함. 주변환경과 같이 조성될 수 있는 전북발전연구원의 2안에 찬성. 첨단유기축산 단지로 축산을 하고 보강공사를 보완하여 인근지역까지 아우르는 축산폐수 또는 하수처리장으로 계획한다면 이중투자가 아닌 보완적 측면으로 볼 수 있음
- 권영호 : 익산왕궁특수지역의 이주대책에 따른 비용이 4,000억 정도 소요되며 기간도 10~20년정도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이주대책은 필요하나, 새만금 담수호의 목표수질 달성이 어려움으로 선보강시설 설치후 이주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윤춘경 : 1999년 새만금수질대책에 따른 문제해결의 일환으로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의 보완, 왕궁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보완 등에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며, 보강공사가 지연 될 경우 나머지 예산투입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음. 관내의 다른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사용가능하므로 중복투자의 우려 없음. 보강공사는 왕궁지역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임. 이주대책과는 별도로 보강공사는 추진해야함.
- 김영수 : 악취, 고농도 해결을 위한 HCR공법에 따른 설명
- 홍옥희 : 수질분석결과 익산천에 위치한 왕궁특수지역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가 만경강의 BOD, T-N, T-P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보강공사로 만경강 수질이 개선될 수 있음. 축산폐수축소, 이주 등 불확실한 가정성을 놓고 볼때 공정에 유연성이 필요함
- 김보국 : 현재 확보한 사업비 550억은 보상금으로 전환하지 못하며, 장기간이 소요되는 이주대책기간중에 발생하는 축산폐수의 처리가 필요하므로 이주대책 및 축산폐수처리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됨

결과적으로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는데 보강시설이 있어야 하고, 왕궁특수지역의 축사가 축소된다 할지라도 약 9만두에서 발생된 축산폐수의 처리를 위하여 보강시설이 필요하며, 향후에 상기시설을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음. 단, 방류수질기준만족, 만경강수질개선 등 축산폐수처리시설에 확신이 전제되어야 함.

- › 주간회의
- › 연구과제
- › 연구사업
- › 동정
- › 언론보도
- › 게시판
- › 토론회요약
- › 인터뷰요약
- › 자유발언대

♣ 질의답변

- **질문** ⇒ 왕궁익산농장대표 송하옥 :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를 통하여 만경강 수질개선을 하는것 보다는 전체를 이주시키는 것이 수질 오염원을 제거하데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함.
- **답변** ⇒ 진희섭 :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 새로운 시설을 하는게 아니고 기존의 시설에서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700t의 규모로 축소보강 하는 사업이므로 필요한 사업이다.
- **답변** ⇒ 이창현 : 이주후 재축산시 새로운 기준에 의해 축산폐수가 처리됨. 위생매립이나 누적된 축산폐수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근본적 악취문제 해결. 도나 익산시는 왕궁지역의 휴폐업 축사를 매입하여 쾌적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음
- **질문** ⇒ 온수마을주민1 : 수질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투자를 했지만 수질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보강공사의 규모가 700억 정도에 이룸. 향후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이 필요
- **질문** ⇒ 온수마을주민2 : 왕궁특수지역 악취로 인근지역 주민이 피해를 봄. 쾌적한 삶을 위한 대책이 필요. 보강공사도 중요하지만 이주 대책 만큼은 반드시 해결해 주길 바람
- **질문** ⇒ 금호농장대표 : 전라북도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지금까지 축산폐수를 위해 많은 공법(톱밥, 슬러리, 스크래퍼 등)이 도입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함. 수질개선은 보강공사가 아닌 특수지역 주민들의 이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질문** ⇒ 전라일보 : 이전시기는 언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수처리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전환하는 비용은
- **질문** ⇒ CBS : 개별농장에서 수거시설이 별도로 필요한가? 악취발생 여부는?
- **답변** ⇒ 김보국 : 연구진에서는 이전시기를 언급할 수 없음. 그러나 이전시기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검토하였음. 사업제안서상 2계열로 되어 있으며, 하수처리나 축산폐수처리의 공정이 유사하여 기술적으로 변경 가능함. 폐수처리건설비용의 약30%를 시설보강비용으로 볼 수 있음
- **답변** ⇒ 김영수 : 농장개별적으로 집수정 설치를 통해 기존 분뇨수거방식을 활용함. 악취문제에 대해 크게 고려할 사항 아님. 에어커튼이나 탑상형을 활용하면 부지가 넓지 않은 곳에서도 처리할 수 있음
- **답변** ⇒ 진희섭 : 이주대책이 확정된 후에 보강공사 가능함
- **답변** ⇒ 양재삼 : 이주는 지역민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갈 때 또 다른 지역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이주 라는 용어보다는 재개발이란 용어가 적합. 현실화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 전주 KBS제1라디오 「전북은 지금」 (9월 11일) 인터뷰 - 김보국 연구위원

- > 주간회의
- > 연구과제
- > 연구사업
- > 동정
- > 언론보도
- > 게시판
- > 토론회요약
- > 인터뷰요약
- > 자유발언대

### 1. 이 번 토론회에 주요쟁점은 어떤 거였나요?

-익산시가 예산확보를 통해 왕궁특수지역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보강공사를 진행하던 중 올 초 이주문제가 대두 되면서 보강사업이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보강 공사 역시 수질개선을 위해 시급한 사업인 만큼 전문가, 시민, 민간단체, 행정가를 들이모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자리였음.

### 2. 보강공사와 이전우선문제에 이견이 팽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결방안에 가닥이 잡혔습니까?

-이번 토론회의 경우 해결방안에 대한 해법을 찾은 자리였다기 보다는 민간차원의 전문가와 주민의 왕궁특수지역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볼 수 있었으며 말씀하신대로 두 의견이 팽팽하였습니다.

### 3. 무엇보다 토론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 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새만금관련 전문가, 축산폐수처리전문가, 민간단체, 행정, 왕궁관련 연구자 들 그리고 이해 당사자인 왕궁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주셨음. 전문가들의 경우 주로 새만금수질과 관련하여 왕궁특수지역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의 시급성과 이주대책에 대해 예산소요가 많은 만큼 단기적으로 보다는 장기적 계획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며,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자리였음.

행정에서는 이주문제가 확정되기 전에는 보강공사를 진행할 수 없음.

주민들의 경우 새만금수질을 위해서는 보강공사 보다는 근본적인 원인 제거하는 것이 좋으므로 필히 지역주민 전체를 이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었음.

### 4. 김 연구위원도 이 번 토론회에 참여하셨잖습니까?

#### 어떤 방안을 제시하셨는지요?

-저는 이번 토론회에서 주로 축산폐수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 국가로부터 이미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보강공사를 위해 55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계획된 보강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해야 할지 그리고 보강공사를 계획대로 할 수 없다면 어떤 형태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익산시 전체 축산폐수처리시설로 활용하는 방법, 하수처리시설로 전환하는 방법, 축산폐수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병행하는 방법, 지원금의 보상금으로의 전용가능성에 대한 것이었음.

### 5. 최근.. 왕궁특수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주민들에 입장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지난 4월 왕궁특수지역 3개농장(익산, 금호, 신촌 등)에 대해 실 거주민 872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설문내용 : 주거환경, 생활환경, 이주의사 및 이주형태, 보상등에 대해

설문결과 : 거주민의 84.4%가 이주를 원하고 있으며 56.0%가 희망지로 개별

- > 주간회의
- > 연구과제
- > 연구사업
- > 동정
- > 언론보도
- > 게시판
- > 토론회요약
- > 인터뷰요약
- > 자유발언대

이주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이주비와 생계비를 주민 보상시 주요 지원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6. 전라북도는 현재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어떻게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나요?

-지난주 전문가토론회를 거쳐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이 보고되었을 것으로 압.

정책결정자들의 논의를 통해 합당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압. 따라서 현재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전북도의 입장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음.

7. 그렇다면..오염해소를 위해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대책,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주나 보강공사나 새만금지구의 오염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임.

모두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며 또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따라서 예산확보가 쉬운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시간의 오래 걸리더라도 필요한 사업이라면 꾸준히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조속히 사업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 주간회의
- > 연구과제
- > 연구사업
- > 동정
- > 언론보도
- > 게시판
- > 토론회요약
- > 인터뷰요약
- > 자유발언대

1. 익산왕궁특수지역 축산폐수 처리시설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역시 이주대책에 대한 여러 방향등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이 어떻게 되죠?

-익산시가 예산확보를 통해 2003년부터 왕궁특수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및 축산폐수처리장 보강공사를 진행해 오던 중 2006년 1월 전라북도가 왕궁특수지역에 대한 이주대책 추진 발표에 따라 사업추진이 보류된 상태이며 현재에는 의회, 지역주민, 중앙부처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조율 한 후 추진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압.

2. 이주대책과 관련되어서는 지난 90년대부터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었고 최근에 좀 더 이주대책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았는데요. 전발연 측에서 이주대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주대책 관련된 전발연측의 조사결과와 의견은 어떻게 모아졌는지?

- ① 구역설정 및 부지활용방안 : 계획대상지 설정 및 용도별 수요추정 및 토지배분
  - ② 지역주민 이주대책 : 지역주민의식조사, 집단이주 및 개별이주 지원방안 검토
  - ③ 환경기초시설 중복투자 최소화 대책 : 축산폐수 중복투자 최소화 대책, 왕궁지역 토지이용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도입방안
  - ④ 사업투자계획 및 개발파급효과 분석
- 결론을 내기 보다는 여러안을 검토함으로써 논의를 통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3.전북도의 의견은 어떻게 모아지는 것 같나요

-지난주 우리 연구원은 왕궁특수지역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 및 이주대책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새만관련전문가, 축산폐수처리전문가, 민간단체, 행정 등 9명의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인 왕궁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열띤토론이 이루어졌음.

-전문가들의 경우 주로 새만금수질과 관련하여 왕궁특수지역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의 시급성과 이주대책에 대해 예산소요가 많은 만큼 단기적으로 보다는 장기적 계획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며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 였음.

-주민들의 경우 새만금수질을 위해서는 보강공사 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좋으므로 필히 지역주민 전체를 이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었음. 이러한 토론결과 정책결정자들에게 보고되었을 것으로 압.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당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함. 토론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루어진 만큼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음.

- > 주간회의
- > 연구과제
- > 연구사업
- > 동정
- > 언론보도
- > 게시판
- > 토론회요약
- > 인터뷰요약
- > 자유발언대

4.수질 전문가들의 의견은 새만금 수질개선이 급박한 만큼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이주대책을 기다리는 것보다 보강공사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이주나 보강공사는 새만금지구의 오염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모두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며 또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따라서 예산확보가 쉬운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필요한 사업이라면 꾸준히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하여 조속히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전북발전연구원이 뭐하는 뎀니까?

기획조정팀장 | 안 완 기



- > 주간회의
- > 연구과제
- > 연구사업
- > 동정
- > 언론보도
- > 게시판
- > 토론회요약
- > 인터뷰요약
- > 자유발언대

딱 이 맘 때이다.

“전북이 발전하려면?” 이라는 소제를 선택하고 신문사에 글을 기고하고자 고민하고 고민하며 나 자신에게 황당해 했던 시절이 있었다. “전북이 발전하려면” 이라니, 말 그대로 내가 선택한 소제이기도 훌훌 털어내 버리고 글을 접으면 그만인 것을 그러질 못했다.

그 이유는 강산이 다섯 번 정도로 변해가는 세월 속에서 내가 태어나 함께 뒹굴고 뛰놀며 살아 온 너무도 소중한 고향 터전이 바로 이 전라북도이기 때문이었다.

사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제일 낙후한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더욱더 발전에 대한 소망도 크고,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며 경제적으로 뒤쳐진 우리 고향 전북을 이끌어 세우고자 노력하기도 한다.

헌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전북 발전의 장애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 같다. 작년에든, 제 작년에든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너무도 소중한 고향 전북이 낙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민과 관이 어찌나 똑같은 모양새로 그렇게 닳아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조차 한 마음이 들기도 하다.

물론 나 자신이 느끼며, 강조한 내용을 새로운 주제인 것 마냥 되새김질 하는 것도 난망하기도 하지만, 작년에 신문사에 기고했던 내용의 주된 핵심은 사무(四無) 극복운동을 펼쳐 보자는 것이었다.

첫째의 극복은 무관심(無關心)을 극복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사적이익이 아니라 전북발전이라는 공적이익 창출에 관심을 갖자는 것이다. 남이 앞서서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나가는 것을 음해하거나 비난만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잘 정리하자는 것이다. 알팍한 기득권을 활용하여 사적이익을 공적이익인양 치장하여 사적이익 추구에 골몰한 사람들을 잘 정돈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무능력(無能力)을 극복하자” 는 것이다. 이 또한 앞의 무관심과 상통하는 점이 없지 않다. 최소한 우리 전북이 발전하기 위해선 “수고한 사람이 수고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로 전환하는 것” 과 병행하여 “전북의 인적자원을 제대로 키워 내거나, 인정하거나, 활용하는 능력이 우리 전북 사회에 하나의 원칙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는 점이다.

셋째는 전북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무책임(無責任)을 극복하자” 는 제안이다. 성과의 과실에는 너도 나도 참여하고자 하나 책임질 일에는 나몰라하는 행태는 오늘의 낙후 전북이 있는 주된 원인이라는 점이다. 물론 많이 변화하고 있다. 책임 있는 모습들이 눈에 띄기도 하다. 하지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행태” 가 우리 전북인, 특히 지도자급의 의식 속에 응결되어 있다면 낙후 전북 탈피는 영원한 과제일 것이다. 그 자체가 혁신 전북의 걸림돌이

- › 주간회의
- › 연구과제
- › 연구사업
- › 동정
- › 언론보도
- › 게시판
- › 토론회요약
- › 인터뷰요약
- › 자유발언대

기 때문이다.

제일 마지막은 “무례(無禮)함을 극복하자” 는 것이다. 이는 우리 전북이 사람살기에 괜찮은 곳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함께 살고 싶은 희망전북” 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낙후되었다고 해서 정신적으로까지 낙후되어야 한다면 이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상호 교호적으로 인간다운 다정함으로 예(禮)를 다하여 존경하는 전북사회를 만들어 낸다면, 이것은 어떠한 발전보다도 최상의 발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를 자부심과 당당함 속에서 성찰하며, 열정적으로 전북발전을 위해 “사무극복운동(四無克復運動)” 을 펼쳐 본다면, 우리의 너무도 소중한 고향 땅 전북발전은 이뤄지리라 본다.

“따르릉. 여보세요. 전북발전연구원입니다.” 라는 말에 “전북발전연구원이 뭐하는 댁니까?” 라 묻는다. 아! 참으로 송구하고 난감하다.

## 가을 이야기

정보지원팀장 | 이 한 호

- > 주간회의
- > 연구과제
- > 연구사업
- > 동정
- > 언론보도
- > 게시판
- > 토론회요약
- > 인터뷰요약
- > 자유발언대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신선하다.

가을 여행은 조금 이른 것 같아 가을 마중이라는 이름으로 지난주 일요일 집을 나섰다. 무주 적상산을 찾기로 했다. 적상산을 가는 길목은 온통 초록색상이었다. 여름내 폭염에 지친 초록은 이제 곧 단풍으로 갈아입을 채비를 하고 있는 듯 했다. 만만한 산 중턱까지 계단을 타고 올라온 천수담에도 수 백번 오갔을 농부의 손만으로 벼이삭이 잘 익어가고 있었다. 노란색 물감을 좌우로 빗질 해놓은 것 같았다. 청성으로 키워낸 고랭지 벼이삭을 바라만 봐도 배가 불러왔다.

논둑길에서 마주친 촌노는 자신의 반나이 정도는 됐음직한 녹색 자전거에 몸을 의지한 채 오르막 경사로를 힘겹게 오르고 있었다. 지친 체중을 번갈아 옮겨가며 힘겹게 덩성덩성 피어오른 코스모스길을 따라 연신 좌우측 페달을 밟으며 엉덩이를 들쭉거렸다. 자전거 앞바퀴와 뒷바퀴를 연결하는 삼각축 사이에 대각선으로 삼을 끼워 넣은 것으로 보아 벼이삭을 둘러보고 수확시기를 가늠하려고 눈에 가는 것이 분명했다. 자전거에 걸쳐놓은 삼은 자전거와 한몸이 되어 왜만한 요동에도 움직이지 않았다. 촌노는 쓸 일이 있으나 없으나 필수적으로 자전거에 삼을 끼고 다니는 듯 해 보였다. 페달에 체중이 좌우로 옮겨질 때마다 오래된 자전거 뒤틀림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쇠 소음을 리듬삼아 촌노는 열심히 눈을 향해 달렸다. 아무렇게나 컵어올린 국방색바지에 햇볕에 별걸게 그을린 종아리위로 선명하게 튀어 오른 굵은 힘줄은 농촌에 고향을 둔 우리아버지들의 모습이었다. 촌노는 자신의 손뼉이 묻은 잘 익은 벼이삭앞에 멈춰 서서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진리를 되새기면서 일년 중 가장 흐뭇하고 넉넉한 표정을 지어보이고 있었을 것이다.

길거리에서 가장 먼저 가을의 수확을 선보인 것은 햇밤이었다. 포장도로의 케법 여유가 있는 갓길 한켠에 얹키 썩키 햇별 정도나 가릴 수 있는 채광막과 몇 부리지 않고 겨우 알아볼 정도로 써놓은 ‘햇밤 한자루 5,000원’ 이라는 광고문구는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정보제공으로 보였다. 햇밤을 한자루 살 요량으로 자동차를 멈추고 햇밤 구경에 나섰다. 해마다 이맘때면 늘 만나는 햇밤이지만 볼 때마다 경이롭고 신비스럽다. 기름을 발라 놓은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윤기가 반질반질한 것이 영락없는 햇밤이다.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기계로는 흉내 낼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청교한 조각가도 이렇게는 못 빚었으리라. 입으로 먹기보다 눈으로 먹는 즐거움이 더 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가을 햇살에 그을려 밤색 얼굴빛을 한 아주머니는 시름시름 줄다가 인기척에 반쯤 갠 상태로 밤 한자루와 5천원을 맞바꾸고는 고쟁이 앞에 찬 주머니에 건네받은 돈을 아무렇게나 쑤셔 넣고 불알 다 봤다는 식으로 다시 줄 준비를 했다. 기대도 안했지만 마무리 인사며 손님에 대한 서비스나 상술은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 조금하지 않은 느긋하고 샘없는 편안한 얼굴

- > 주간회의
- > 연구과제
- > 연구사업
- > 동정
- > 언론보도
- > 게시판
- > 토론회요약
- > 인터뷰요약
- > 자유발언대

이 모든 것들을 대신했다. 분명 자기집 뒷산 밤나무에서 떨어질 때를 기다려 주어진 밤을 해마다 이맘때 똑같은 방식으로 팔아왔겠다 싶었다.

산행을 위해 가던길을 재촉했다. 짙은 녹음을 쥐어짜내는 푸른숲과 9월의 연두색 들판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각박한 마음을 넉넉하고 고향집같이 아늑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단풍이 들면 붉은 치마형상을 닮았다하여 붙여진 이름 적상산은 붉은 치마를 갈아입기 직전이었다. 가을하늘을 떠받들고 있는 적상호는 파란하늘과 그 하늘에 떠있는 구름한점까지도 빼놓지 않고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다. 주변의 울망 줄망한 봉우리들을 다독거리며 어머니 치맛자락을 늘어뜨린 듯한 적상산은 기세당당하지도 비굴하지도 않은 한국의 가을산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았다.

적상산은 이제 곧 붉은 치마로 갈아입고 도시의 회색문화에 지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할 막바지 준비를 서두르는 듯 보였다. 적상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시선 닿는 곳 마다 포근하고 넉넉한 가을농촌의 정취를 물씬 느끼게 했다. 조금하지도 빠르지도 않고 기다림으로 넉넉함을 채워주는 농촌의 가을은 도심의 빠름에 지친 사람들에게 어머니 뺨속같이 아늑하고 포근한 인식처다.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느긋하고 여유있는 가을 농심이 도심까지 별걸게 물들기를 고대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까?

이 가을! 기다릴 줄 모르고 요행과 일확천금을 꿈꾸는 조금하고 혼탁한 물량만능시대의 산물인 바다이야기 대신, 넉넉함과 여유, 기다림의 미학을 즐길 줄 아는 흥흥한 가을이야기로 채워 가길 기대하면서...